

# 다자간 국제회의 안전활동에 있어서 현장활동단계의 역할 및 중요성에 관한 연구 :

## 부산 APEC 행사를 중심으로

### The Study about Role and Importance of Site Activity Stage in Safety Activity for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among Several Countries

이 선 기\*

#### 〈목 차〉

I. 서론	IV. 결과분석
II. 이론적 배경	V. 안전활동 제고방안
III. 연구방법	VI. 결론

#### 〈요 약〉

본 연구는 2005년 부산에서 개최된 APEC 행사의 안전활동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를 토대로 향후 우리나라에서 개최될 다자간 국제회의 안전활동에 대한 제고방안을 모색해 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산 APEC 행사에 직접 참여한 경찰, 소방, 군, 국정원 등 안전기관의 문제인식 차이를 통하여 제반적인 문제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APEC 행사에 차출되어 근접해서 근무한 4개 안전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델파이방법에 의해 3차례에 걸쳐 의견을 수렴, 다자간 국제회의의 단계별 구성요소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구성요소별로 문제인식에 대한 통계처리를 실시하였다.

이와 함께 안전기관 전문가 4명과 1 : 1 면담결과를 통하여 다자간 국제회의 행사에 있어서 현장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현장활동단계는 어떤 역할을 하며, 그 중요성이 무엇인지를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현장활동단계에서는 첫째, 인력운영 면에서는 안전기관의 유경험자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함으로써 차체에 유사한 범국가적인 행사에 차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효과적인 폭발물 검측을 위해서는 첨단장비의 도입을 중기계획에 의거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고 유관기관과 합동반을 구성하여 주요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을 동시에 병행하여야 한다.

\* 대불대학교 경호무도학부 교수, 이학박사(한국체육대학교)학위 서브논문

셋째, 안전장비의 첨단화를 위해서는 첨단장비 박람회 등을 통한 장비도입이 사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국내·외 정보기관과 행사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대테러활동에 최선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다섯째, 각 기관별로 홍보활동을 경쟁적으로 전개하는 것 보다 상호이해 증진차원에서 홍보기구를 설치하여 대국민 홍보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여섯째, 소방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평시에 전기, 가스, 승강기 등 관련회사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행사 시 유관기관과의 통합조정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일곱째, 원활한 취재활동의 편의를 제공하면서도 안전 및 질서유지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보도관리 지침수립이 필요하다.

**주제어 : 다자간 국제회의, 안전활동, 제고방안, 델파이방법, 현장활동단계, 문제인식**

## I. 서 론

지난 2009. 4. 11. 태국의 파타야에서 개최예정이던 ASEAN+3(16개국 아세아국가연합) 행사가 시위대의 습격으로 무산되어 국가위신이 추락되고 태국 바트화의 신용등급까지 하락하는 사태를 보면서 다자간 국제회의의 성공적인 개최가 국가의 대외적인 명성과 경제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교훈을 태국 사태를 통해 그 교훈을 최근 보게 되었다.

오늘날 21세기는 국제화·세계화 시대를 맞아 개최국의 국익을 위하여 다양하면서도 수많은 국제회의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회의의 개최는 인류사회의 화해와 질서를 회복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안경모, 2004).

이러한 국제회의 행사의 개최에 따른 이점은 자국이 의장국으로서 자국정상의 지도력이 국제적으로 부각되고 국제회의를 계기로 자국과 이해관계에 있는 주요국가와의 정상회담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개최국가·도시 브랜드 제고에 따라 자국상품의 홍보효과가 자연스럽게 확산된다. 뿐만 아니라 자국의 저명 기업인이 세계 최고경영자회의를 주관하는 등 자국의 경영·투자환경을 널리 홍보하여 외화 투자유치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정상 만찬 및 다양한 문화행사를 통하여 자국의 전통을 자연스럽게 세계에 홍보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됨으로써 관광객들을 더욱 많이 유치케 하는 등 부수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김두현, 2004).

우리나라는 향후 국제회의를 개최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국제행사 시 안전활동에 관한 연구가 거의 미미한 실정이며, 과거 대다수의 선행연구들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이나 문헌적인 고찰, 연구로만 구성되어 있어서 실제 현장에 적용하기에는 많은 무리가 있었다.

그러므로 중요한 국제적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최근 태국에서의 시위사태로 국제회의가 무산된 사례를 보았듯이 무엇보다 안전활동에 대한 완벽한 대비가 선행되어야 하며, 개최국은 위기관리차원에서 행사장과 국제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 및 제반 시설 등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 및 방비를 위한 국가역량을 총 집결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연구는 한국에서 개최된바 있는 다자간 국제회의인 2005년 APEC(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에 관한 안전활동 사례를 중심으로 다자간 국제회의의 안전활동의 문제점에 대한 경찰, 소방, 군, 국정원 등 안전기관 직원의 인식 차이를 통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안전활동에 대한 제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국제회의의 행사의 안전활동에 직접 참여한 경험이 많은 안전기관 공무원 집단을 대상으로 델파이방법에 의한 3차례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설문으로 조사된 안전활동 단계별 구성항목에 대한 문제인식을 근거로 본 연구의 질적인 수준의 제고를 위하여 안전분야의 전문가 4명과 심층면담을 실시하여 보다 실질적인 제고방안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는 태국사태에서 보았듯이 다자간 국제회의 안전활동의 두 번째 진행단계인 현장활동단계의 역할이 무엇이며, 그 중요성이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었다.

지금까지 단계별로 구분하여 다자간 국제회의를 준비하는 과정이 다자간 국제회의 개최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물이 전무하였으므로 본 연구의 의의가 있으며, 특히 현장활동단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차후 유사한 다자간 국제회의를 개최하는데 있어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II. 이론적 배경

### 1. 국제회의 개념

1999년 9월 8일 제정된 국무총리훈령 제391조에는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은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세계화 수준을 향상시키고 국제사회에서의 신뢰를 제고하며, 지속적인 국가발전의 계기로 활용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제행사의 개념은 “5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100명 이상의 외국인이 참여하는 국제회의, 체육행사, 박람회, 전시회, 문화행사, 관광행사” 등으로 정의될 수 있다(김장신, 2003).

국내에서의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제2조에 의하면 “국제회의라 함은 세미나, 토론회, 전시회 등 상당수의 외국인이 참가하는 회의로서 국제기구 또는 국제기구에 가입한 기관 또는 법인·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는 당해 회의에 5개국 이상의 외국인이 참가해야 하며, 회의참가자가 300인 이상으로 그중 외국인이 100인 이상이어야 하고 3일 이상 회의가 진행되는 회의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을 말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상에는 국제회의를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세미나, 토론회, 학술대회, 심포지움, 전시회, 박람회, 기타 회의로 규정하고 있다(송래현, 2003).

안전활동의 개념은 적용대상 및 범위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의 안전활동이란 각국 정상이 참석한 국제회의를 개최하는 국가의 정부기관 및 안전통제단이 국제회의의 주행사장인 컨벤션센터, 행사 참가인원, 그 외 행사 시설물에 대하여 각종 위협 및 사고방지를 위하여 상호 협력 하에 인적·물적·지리적 위해요소를 사전 제거하는데 필요한 제반활동이라는 의미로 한정하고자 한다.

국제회의행사 및 올림픽·월드컵 등 국제스포츠행사에 있어서 안전대책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 첫째, 안전확보가 최대의 서비스다. 개최국의 모든 국민들에게 유익한 국제회의라 하더라도 사고, 전쟁, 질병, 무질서, 테러 등 생명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해방되려는 안전욕구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로 가장 우선시되는 것이다. 둘째, 안전한 행사개최는 국가 간의 관계증진은 물론 세계평화와 인류화합에 중대한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안전한 행사진행은 경제난 극복과 경제안정을 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는 경제적인 기대효과는 물론 미디어 가치의 극대화로 국제무대에서 개최국의 이미지가 제고되고 사회통합과 국민적 화합을 다질 수 있는 비계량적 유발효과를 가져온다. 넷째, 국제회의에 참석한 국가정상이나 보도진, 관광객들의 신변안전보호와 질서유지를 통하여 국위선양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김두현, 2004).

## 2. 국제회의 안전활동단계

국제회의 안전활동의 단계를 살펴보기에 앞서 『위기관리단계』를 보면 4단계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재난·재해 관리시스템의 활동은 재해의 주기에 따라 예방 및 완화, 준비, 대응 그리고 복구의 4개 과정으로 이루어진다(박홍윤, 1997). 아래 <표 1>은 재난·재해의 진행 및 활동단계로서 배양·예방 ⇒ 발발·준비 ⇒ 진행·대응 ⇒ 소멸·복구의 주요활동내용을 보여준다.

<표 1> 재난·재해 진행과정 및 안전관리의 단계별 활동내용

재난·재해 진행	⇔	활동 단계	주요활동 내용
배양	⇔	예방	사고위험성 분석·위험지도 작성, 건축법 정비 제정, 재해보험, 토지이용관리, 안전관련법 제정, 조세유도
발발	⇔	준비	사고 대응계획 수립, 비상 출동체계 구축, 통합대응체계 구축, 비상통신망 구축, 대응자원 준비, 교육훈련·연습
진행	⇔	대응	사고 대응계획 적용, 재난진압, 구조구난, 주민 홍보 및 교육, 응급의료체계 운영, 사고대책 본부 가동, 현장수습, 환자수송, 간호, 보호 및 후송
소멸	⇔	복구	현장 잔해물 제거, 긴급복구, 전염병 예방, 이재민 지원, 임시 주거지 마련, 시설복구

출처 : 이명수, 국가안전관리시스템의 진단과 처방에 관한 연구, 2003.

미국 연방관리청(FEMA: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의 통합위기관리체계에서도 발전된 총체적 위기관리모형은 정책적인 측면에서 위기관리 단계를 완화,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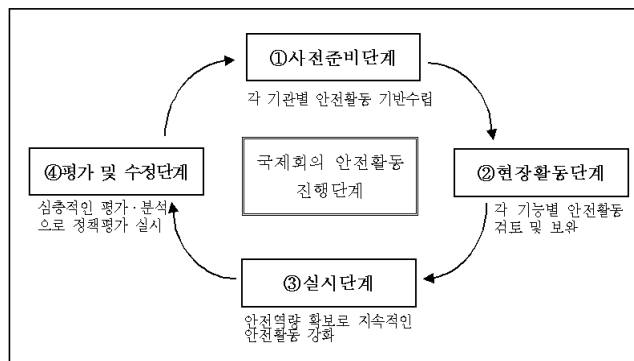
비, 대응, 복구의 4단계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들 단계는 순차적이기보다는 상호 연관된 순환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이재은, 2000).

이에 국제회의의 안전활동은 관련 안전활동이나 협조해야 할 부처가 많으며 상호 복잡하게 연동되어 이를 해결하려면 단계별 임무수행이 필요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국제회의의 안전활동 진행단계를 위기관리단계와 안전활동 순환체계를 고려하여 <그림 1>과 같이 ①사전준비 단계 ②현장활동단계 ③실시단계 ④평가 및 수정단계로 구분하고자 한다.

사전준비단계는 각 기관별 안전활동의 기반을 수립하는 단계로 국제회의 개최가 결정되면서 국제회의의 준비를 위한 안전예산 확보와 안전활동 기본계획수립, 안전기구 구성 등의 업무를 실시하고 제 공안기관은 행사준비기획단 및 안전통제단에 연락관을 파견하면서 주요업무를 협의·조정하고 준비활동을 하게 되며, 국제회의의 안전활동 기본원칙을 수립하고 준비위원회 규정(안)을 제정하게 된다. 이 법규를 근거로 안전통제단 설치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관계부처 위원과 학계, 재계, 언론계 등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국제회의 개최도시 선정위원회가 구성되어 개최도시를 평가·선정하게 된다.

현장활동단계는 실질적인 안전활동을 검토하고 보완하는 단계로 안전활동단계 중 매우 중요한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제 안전기관은 분담되어 있는 임무와 기능을 확인하고 조정하는 세심한 준비와 상호 정보를 공유하면서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개선하고 행사 안전활동을 저해하는 인적·물적·지리적 위해요소를 사전에 제거시키는 활동을 실시하며 실시단계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컨벤션의 출입절차 보완 및 강화, 인력운영의 효율화 및 전문화, 행사에 관련된 위협 및 위협요인에 대한 정보 및 보안활동 강화, 검측활동의 내실화, 안전장비의 첨단화, 실질적인 소방통합조정권 및 식음료 안전 강화, 보도·홍보활동의 효율화, 체계적인 교육훈련 및 비상대책 강구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림 1> 다자간 국제회의의 안전활동 진행단계



출처: 이선기, 다자간 국제회의의 안전활동의 효율성 제고에 관한 연구, 2007.

실시단계는 사전준비단계와 현장활동단계에서 추진된 모든 안전조치에 대해 집약적으로 역량을 발휘하고 준비기획단과 제 공안기관이 혼연일체가 되어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제반 재난·사고에 대한 관리 및 예방·대응조치 실시, 안전인력의 최대 능력 발휘를 위한 제반 관리활동이 이루어지는 단계이다.

평가 및 수정단계는 최초 의도했던 국제회의 안전활동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를 분석·평가하는 단계로 차후 행사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정리·기록·보관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정책의 개선·수정을 위하여 이전의 활동결과를 평가하는 업무 등이 중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의 기본 틀

본 연구에서는 아래 <표 2>와 같이 APEC행사에 참여했던 경찰, 소방, 군, 국정원 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활동 문제점을 델파이방법(Delphi Method)에 의해 3회에 걸쳐 설문에 응할 만한 위치에서 근무한 직원만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아울러 설문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안전기관의 실무 전문가인 과장급 간부 4명과 1 : 1 심층면담을 통하여 모색된 자료를 분석·정리하여 실질적인 현장활동단계의 제고방안을 도출하였다.

이에 대한 연구의 기본 틀은 아래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2> 연구의 기본 틀

구 분		안전활동 연구방법	안전활동 문제인식 도출
양 적 연 구	1회 설문	개방형 설문작성	델파이방법
	2회 설문	구성요소 의견제시, 개방형 설문작성	델파이방법
	3회 설문	대·중·소분류 확정, 구성항목별 설문작성	델파이방법
질적 연구		안전기관 핵심 전문가(4명)와 1 : 1 심층면담[보조 역할]	
			
다자간 국제회의 안전활동의 현장활동단계 역할 및 중요성 인식			

##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양적연구를 위해 우리나라에서 개최한 다자간 국제회의인 부산 APEC 행사에 직접 참여하여 핵심적인 안전활동의 역할 및 총체적인 진행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경찰, 소방, 국정원, 군 기관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목적표집(작위표본)으로 선정하였으며 기관별 현황으로는 경찰청 소속직원 44명, 소방청 35명, 국정원 11명, 군 22명을 해당기관 간부의 추천을 통해 112명을 선정하였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관별 연령, 경력에 대한 분포는 <표 3>,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3> 소속기관별 연령현황

구 분	29세 이하	30~39세 이하	40~49세 이하	50세 이상	계
경 찰 청	6	29	9	·	44
소 방 청	·	18	13	4	35
국 정 원	·	5	6	·	11
군	·	9	13	·	22
계	6	61	41	4	112

<표 4> 소속기관별 경력현황

구 분	1~5년	6~10년	11~15년	16~20년	21~25년	26년이상	계
경 찰 청	7	16	14	5	2	·	44
소 방 청	5	9	9	4	7	1	35
국 정 원	1	2	3	2	3	·	11
군	·	1	5	10	6	·	22
계	13	28	31	21	18	1	112

질적연구를 위해서는 안전활동 문제점 극복을 위한 제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전문가집단 선정은 동료집단의 판단을 이용하여 선정하였다. 즉, 안전활동 기관별로 전 분야의 최고 전문가를 두 사람 이상 지명하도록 요청하여 그 결과 가장 많이 지명 받은 전문가 순으로 위촉하였다. 순위를 가릴 수 없는 경우는 해당 부서 국장급 간부의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질적 연구대상자 현황은 <표 5>와 같다.



〈표 5〉 질적 연구대상자

성 명	연 령	성 별	소 속
D S S	45세	남	안전기관(I)
K J J	49세	남	안전기관(II)
L L S	48세	남	안전기관(III)
S H S	46세	남	안전기관(IV)

- 심층면담자의 요청에 의거, 이니셜로 표기.

### 3. 조사도구 및 척도구성

설문의 항목을 구성하기 위해 안전활동 단계별로 대분류와 중분류, 그리고 소분류로 나누어 평가요인을 선정하였다. 대분류의 구성요소는 사전준비단계, 현장활동단계, 실시단계, 평가 및 수정단계로 4단계로 구분하고 중분류의 구성요소는 24개의 문제인식 평가요인으로 구분하였으며, 소분류에서 118개의 항목을 구성하였으나, 지면이 허락하는 범위인 중분류 7개 부문, 소분류 39개 항목으로 축소하여 집약하였다.

다자간 국제회의 안전활동 문제점에 대한 항목별 문제점 인식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로는 응답자의 단순한 짐작이나 즉흥적인 응답을 피하고 보다 신중하면서도 정확한 판단을 유도하기 위하여 Likert 5점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척도구성 내용은 〈표 6〉과 같다.

〈표 6〉 문제인식에 대한 척도 구성

구 분	1	2	3	4	5
문제 인식	문제가 전혀 없다	문제가 거의 없다	문제가 보통이다	문제가 대체로 있다	문제가 매우 많다

### 4. 연구기간

설문지 작성은 2006. 4. 1~2006. 5. 30까지 2개월 동안 심도 있게 작성하였으며, 이때 설문에 응할 안전기관의 행사 차출자의 수준에 적합하도록 설문수준을 설정하였고, 설문지 배부 및 회수는 2006. 6. 11~2006. 8. 10까지 2개월 동안 3차례에 걸쳐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들의 특성상 설문 응답을 받기 위한 기간이 길어졌다. 또한 질적 연구를 추가하기 위하여 각 기관 전문가 4명과 1 : 1 심층을 통한 의견수렴과 종합분석 및 검토를 2006.

8. 21~2006. 9. 20까지 실시하였다.

## 5. 자료분석 및 처리방법

양적연구의 자료처리 및 통계적 분석과정은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인 EXCEL과 사회과학 통계분석을 위한 SPSS 13.0을 이용하였다. 제1회 설문은 다자간 국제회의 안전활동 구성요소 및 문제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얻기 위하여 개방형 설문을 사용하였으며, 제2회 설문은 구성요소에 대하여 내용분석을 실시하였고, 제3회 설문에서는 문제인식에 대한 정도를 재 규명하기 위하여 평균(M), 표준편차(SD) 등 기술통계분석(Descriptive Statistics) 및 각 기관별 인식차이를 규명하기 위한 일원변량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질적 연구를 위한 자료수집은 심층면접(in-depth interview)과 2차 자료를 사용하였다. 먼저 심층면접을 통해 얻어진 자료들은 녹음기로 녹취할 계획이었으나 안전활동 실무 전문가들이 녹음에 대한 부담감을 느껴서 거부 의사를 대부분 표현에 따라, 면접과정 중 특이내용을 기록하고 기록된 자료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과정을 거쳐 보완하였다.

심층면접을 위해 반구조화된 면담과 비구조화된 면담을 혼합하여 사용하였으며, 면담 전 적합한 질문지를 구성하고 이를 토대로 면접을 진행하여 일반적인 배경과 특성 등에 관한 깊이 있는 정보를 수집하였다. 또한 면담이 진행되는 중 제기되는 의문으로부터 출발하여, 참여자의 답변을 토대로 파생되는 질문을 계속적으로 진행하는 비구조화된 면담을 병행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준비하였던 질문내용이나 질문방식을 상황에 맞게 변형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실제면접은 개별면담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면담 전에 준비된 자료를 먼저 E-mail로 송부하여 미리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면담자가 원하는 시간에 사무실이 아닌 별도 장소에서 사전약속을 통해 면담을 실시하였다(면담자료는 별첨).

면담 시에는 내용의 충실도와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모든 면담내용을 있는 그대로 메모하였다. 면접조사에서 얻어진 기록자료를 개념화시키는 부호화(coding)과정을 통하여 면담, 관련문헌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수집된 자료를 분석해 내는데 유용한 방법인 항시비교법(Constant comparative method)과 Strauss(1987)에 의해 개발된 근거이론접근법(Grounded theory approach)에 의존하여 자료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연구자가 면접대상자들의 일상적 용어나 어투로부터 학문적으로 의미 있는 개념을 만들어 가는 과정을 중시하므로 모든 텍스트가 대상이 되지 않고 다만 제기된 문제점에 대하여 의미 있는 정보를 알 수 있게 해주는 부분들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자연적 상황 하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실체를 포함하고 거기에 적용할 수

있는 유동성 있는 도구는 인간(Guba & Lincoln, 1985)이기 때문에 관찰이나 면접 등이 중요한 자료수집 방법이 되는 질적연구에서도 연구자는 연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위한 노력은 Guba와 Lincoln(1981)이 제시한 타당도 준거(trustworthiness criteria)의 내용들을 토대로 실시하였으며, 이러한 노력은 질적자료를 분석하기 위한 평가의 노력(김영천, 1997)의 일환으로 신뢰를 인정받은 바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하여 연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즉,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동료와 토의 및 연구결과에 대한 평가를 지속적으로 한다. 이러한 방법은 자료수집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방법상의 사소한 문제점들과 이에 대한 대처방안들이 경험에 의해 보완될 수 있게 하였으며, 특히 자료분석 과정에서 질적연구 특성상 예견되는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른 해석상의 오류를 방지할 수 있게 하였다.

## IV. 결과 분석

### 1. 개요

단계별 문제인식으로 안전활동 4개 단계 중 가장 높은 문제 인식정도를 나타내는 영역은 사전준비단계로서 3.450로 평균치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평가 및 수정단계(평균: 3.317), 현장활동단계(평균: 3.316), 실시단계(평균: 3.294)의 순으로 나타났고 이에 대한 기술통계량은 <표 4-1>과 같다.

현장활동단계에 대한 문제인식정도는 사전준비단계보다는 낮게 나왔으나, 평가 및 수정단계와는 거의 비슷하게 분석되었고 실시단계보다는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질적연구에서 각 기관의 핵심적인 업무를 담당했던 전문가 5명 중 3명은 현장활동단계를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 특이하다 할 수 있으며, 본 연구를 실시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표 7> 단계별 문제인식

구 분	응답자 수	평 균	표준편차
사전준비단계	112	3.450	.3897
현장활동단계	112	3.316	.4060
실시단계	112	3.294	.4841
평가 및 수정단계	112	3.317	.5388



지면의 제한에 따라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14개의 중분류 문제인식 중 상위 7개, 문제인식인 중분류 부문 및 그에 대한 항목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1) 안전인력운영 부문 문제인식

<표 9>는 다자간 국제회의 안전활동 문제점 구성항목의 대분류 현장활동단계 중 중분류 “안전인력운영”의 소분류 항목에 대한 각 기관별 문제인식정도의 차이 분석을 규명하기 위한 일원변량분석 결과이다. “안전인력운영” 부문은 8개 항목으로 구성되며 이중 항목5, 항목6번은 안전인력운영 부문 전체 평균 3.485보다 높게 나타났다. 즉, 각 기관 공히 근무시간의 과다로 인한 피로감 및 회의·보고시간의 과다로 업무와 일정의 차질 등을 문제인식이 높은 것으로 안전기관에서 지적하였다. 항목1, 항목2, 항목8은 기관별 문제인식정도차이는 유의수준 0.05 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으나, 항목3~항목7은 유의수준 0.05 하에서 기관별로 문제인식정도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문제인식이 높은 기관으로는 국정원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경찰, 소방청, 군 기관 순 이었다.

<표 9> 안전인력운영 부문 문제인식

구분	내 용	안전기관				평균	표준 편차	F값 (Sig.)	동일집단 (사후검증)	
									1	2
1	폭발물 검색업무와 같이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에 비전문가가 차출되어 행사안전의 신뢰성이 떨어진다.	3.14	3.49	3.45	2.95	3.24	.83	2.456* (.067)	군 경찰 국정원 소방청	
2	여성인력이 부족하여 여성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지장이 있다.	3.32	3.06	3.45	3.09	3.21	.90	.941 (.423)	소방청 군 경찰 국정원	
3	각 근무지별로 외국어 능력 우수자/통역이 부족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다.	3.57	3.54	3.45	2.95	3.43	.73	4.243*** (.007)	군 국정원	국정원 소방청 경찰
4	동원인력 부족으로 일부 근무자의 업무가 중복 부여되어 근무 효율성이 떨어진다.	3.61	3.74	3.64	2.64	3.46	.98	7.927*** (.000)	군	경찰 국정원 소방청
5	근무시간이 과다 편성되어 피로도가 가중된다.	3.89	3.77	4.27	3.55	3.82	.85	1.978 (.122)	군 소방청 경찰	소방청 경찰 국정원
6	행사 인력 교체에 따른 업무의 연속성이 감소된다.	3.48	3.60	3.64	2.91	3.42	.83	3.890** (.011)	군 경찰	경찰 소방청 국정원
7	행사인력 선발 시 경험자보다 신입/유휴인력이 선발 되는 비율이 높은 편이다.	3.57	3.20	4.64	3.18	3.48	.93	9.329*** (.000)	군 소방청 경찰	국정원
8	대내·외 보고회의가 많아 업무에 지장이 있고, 회의가 길어져 차후 업무/일정에 차질이 생긴다.	3.95	3.86	3.82	3.50	3.82	.81	1.608 (.192)	군 국정원 소방청 경찰	
안전인력운영 전체		3.550	3.549	3.768	3.126	3.485	.5066	7.186*** (.000)	군	소방청 경찰 국정원

\* p < 0.1, \*\* p < 0.05, \*\*\* p < 0.01

2) 폭발물탐지안전 부문 문제인식

〈표 10〉은 다자간 국제회의 안전활동 문제점 구성 항목의 대분류 현장활동단계 중 중분류 “폭발물 탐지안전” 소분류 항목에 대한 각 기관별 문제인식정도의 차이 분석을 위한 일원변량 분석 결과이다. “폭발물 탐지안전” 부문은 4개 항목으로 구성되며, 이중 항목9번, 항목11번은 폭발물 탐지안전 부문 전체 평균 3.4688보다 높게 나타났다. 즉, 검측인력의 확보 및 보고서작성으로 인하여 근무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항목9, 항목10은 유의수준 0.05 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고, 항목11, 항목12는 유의수준 0.05 하에서 기관별로 문제인식정도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문제인식이 높은 기관으로는 소방청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국정원, 경찰, 군 기관 순 이었다.

〈표 10〉 폭발물탐지안전 문제인식

구분	내 용	안전기관				평균	표준 편차	F값 (Sig.)	동일집단 (사후검증)	
									1	2
9	각 행사장별 폭발물탐지인력이 부족하여 양질의 검색활동에 제한이 따른다.	3.64	3.69	3.55	3.14	3.54	.80	2.542* (.060)	군 국정원 경찰 소방청	
10	폭발물탐지요원이 현장에서 활동한 준비기간이 짧아서 유관기관과의 협조/조율에 미흡한 점이 있다.	3.27	3.29	3.55	3.00	3.25	.80	1.261 (.292)	군 경찰 소방청 국정원	
11	보고서 작성을 위해 소비되는 시간이 많아 정상적인 검색을 하는데 지장을 받는다.	3.59	3.94	3.73	3.32	3.66	.84	2.759** (.046)	군 경찰 국정원 소방청	
12	최신 검측장비를 도입/숙달하는데 충분한 기간을 확보하지 못하여 장비의 운용상 효율성이 감소된다.	3.39	3.71	3.27	3.09	3.42	.74	3.694** (.014)	군 국정원 경찰	국정원 경찰 소방청
폭발물탐지안전 전체		3.4716	3.6571	3.5227	3.1364	3.4688	.5823	3.931*** (.010)	군 경찰 국정원	경찰 국정원 소방청

\* p < 0.1, \*\* p < 0.05, \*\*\* p < 0.01

3) 안전장비 부문 문제인식

〈표 11〉은 다자간 국제회의 안전활동 문제점 구성 항목의 대분류 현장활동단계 중 중분류 “안전장비” 소분류 항목에 대한 각 기관별 문제인식정도의 차이 분석을 위한 일원변량분석 결과이다. “안전장비” 부문은 2개 항목으로 구성되며, 이중 항목14는 안전장비 부문 전체

평균 3.437 보다 높게 나타났다. 즉, 안전기관 별로 첨단 안전장비의 도입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음을 지적하였다.

〈표 11〉 안전장비 부문 문제인식

구분	내 용	안전기관				평균	표준 편차	F값 (Sig.)	동일집단 (사후검증)	
									1	2
13	국제 수준에 적합한 경비시스템의 도입이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3.30	3.43	3.36	3.14	3.31	.78	.644 (.589)	군 경찰 국정원 소방청	
14	각 안전기관별 첨단장비도입(방재/통신/보안 등)이 부족하다.	3.52	3.60	3.55	3.59	3.56	.84	.065 (.978)	경찰 국정원 군 소방청	
안전장비 전체		3.409	3.514	3.454	3.363	3.437	.684	.254 (.858)	군 경찰 국정원 소방청	

항목13, 항목14, 모두 기관별 문제인식정도차이는 유의수준 0.05 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문제인식이 높은 기관으로는 소방청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국정원, 경찰, 군 기관 순이었다.

#### 4) 위협정보/보안 부문 문제인식

〈표 12〉는 다자간 국제회의 안전활동 문제점 구성 항목의 대분류 현장활동단계 중 중분류 “위해정보/보안”의 소분류 항목에 대한 각 기관별 문제인식정도의 차이 분석을 위한 일원변량분석 결과이다. “위해정보/보안” 부문은 8개 항목으로 구성되며 이중 항목15, 항목16번, 항목17번, 항목18번, 항목19번은 “위해정보/보안” 부문 전체 평균 3.417 보다 높게 나타났다. 즉, 외국 정보기관이나 안전기관 간의 정보교환이나 전파가 잘 안되고, 체계적인 정보분석이 부족하며, 근무지에 주요 테러리스트 인물사진 미비치 등을 문제인식이 높은 것으로 지적하였다.

〈표 12〉 위해정보/보안 부문 문제인식

구분	내 용	안전기관				평균	표준편차	F값 (Sig.)	동일집단 (사후검증)	
									1	2
15	국제 테러협약의 관리 등 위해정보에 대해 외국정보기관과 유기적인 정보교환이 부족하다.	3.73	3.54	3.73	3.36	3.60	.83	1.077 (.362)	군 소방청 경찰 국정원	
16	안전기관간의 유기적인 정보교환 협조체제가 미흡하다.	3.41	3.74	3.64	3.23	3.50	.74	2.757* * (.046)	군 경찰 국정원 소방청	
17	세계 도처에서 발생한 테러사태를 빠르게 분석하여 안전인력에게 교육/전파하는데 미흡하다.	3.70	3.54	3.82	3.45	3.62	.79	.837 (.477)	군 소방청 경찰 국정원	
18	위해정보 수집 시 과거의 전례/기준에 따라 수집되어 체계적 분석이 미흡하다.	3.34	3.54	3.36	3.64	3.46	.68	1.182 (.320)	경찰 국정원 소방청 군	
19	알카에다 등 테러리스트 인물 사진을 체크포인트 상에 비치하고 근무하지 않는다.	3.48	3.69	3.45	3.27	3.50	.86	1.080 (.361)	군 국정원 경찰 소방청	
20	국제회의의 행사에 반대하는 NGO 등 시위정보가 안전요원에게 적시에 전파되지 않는다.	3.25	3.00	4.00	2.95	3.19	.94	3.978* ** (.010)	군 소방청 경찰	국정원
21	주변 공사장에 대한 비전문적인 통제로 인하여 공사기간에 차질이 생긴다.	3.39	3.34	3.36	2.77	3.25	.73	4.283* ** (.007)	군	소방청 국정원 경찰
22	행사지역 공항 출입국관리 업무가 인천공항에 비해 신뢰 수준이 떨어진다.	3.43	3.03	3.36	3.05	3.22	.77	2.440* (.068)	소방청 군 국정원 경찰	
위해정보/보안 전체		3.466	3.428	3.591	3.216	3.417	.4919	1.879 (.137)	군 소방청 경찰 국정원	

\* p < 0.1, \*\* p < 0.05, \*\*\* p < 0.01

항목15, 항목17, 항목18, 항목19, 항목22는 기관별 문제인식정도차이는 유의수준 0.05 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으나, 항목16, 항목20, 항목21은 유의수준 0.05 하에서 기관별로 문제인식정도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문제인식이 높은 기관으로는 국정원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경찰, 소방청, 군 기관 순이었다.



5) 안전홍보 부문 문제인식

〈표 13〉은 다자간 국제회의 안전활동 문제점 구성 항목의 대분류 현장활동단계 중 중분류 “안전홍보”의 소분류 항목에 대한 각 기관별 문제인식정도의 차이 분석을 위한 일원변량분석 결과이다. 안전홍보 부문은 6개 항목으로 구성되며 이중 항목23번, 항목25번, 항목26번, 항목27번은 “안전홍보” 부문 전체 평균3.3884 보다 높게 나타났다. 즉, 언론의 테러위협 보도에 대한 대응 홍보 및 외국 언론을 이용한 홍보의 미흡, 시각적인 홍보 영상물을 이용한 홍보 및 안전홍보의 일관성 부족을 지적하는 문제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23, 항목24, 항목26, 항목27은 유의수준 0.05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발견 할 수 없었고, 항목25, 항목28은 유의수준 0.05하에서 기관별로 문제인식정도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문제인식이 높은 기관으로는 국정원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경찰, 소방청, 군 기관 순이었다.

〈표 13〉 안전홍보 인식

구분	내 용	안전기관				평균	표준편차	F값 (Sig.)	동일집단 (사후검증)	
									1	2
23	각종 언론이 테러위협에 대한 보도비중을 높였으나 이에 대한 대응홍보는 미흡하다.	3.50	3.37	3.55	3.23	3.41	.75	.784 (.505)	군 소방청 경찰 국정원	
24	언론의 다양한 취재/인터뷰를 이용한 대국민홍보/시민 협조사항에 관한 홍보가 미흡하다.	3.34	3.40	3.27	3.09	3.30	.72	.890 (.449)	군 국정원 경찰 소방청	
25	외국 언론을 이용한 행사 안전활동에 관한 홍보가 미흡하다.	3.64	3.46	3.55	3.05	3.46	.72	3.581** (.016)	군 소방청 국정원	소방청 국정원 경찰
26	시각적인 영상미디어를 활용한 홍보 영상물 활용이 부족하다.	3.36	3.37	3.73	3.41	3.41	.72	.808 (.492)	경찰 소방청 군 국정원	
27	안전분야 홍보를 위한 기획/조정의 협의체가 없어 안전홍보의 일관성이 부족하다.	3.41	3.57	3.64	3.23	3.45	.70	1.438 (.236)	군 경찰 소방청 국정원	
28	포스터/공익광고/인터뷰를 통한 대국민 신고의식 제고가 부족하다.	3.41	3.34	3.64	2.86	3.30	.78	3.515** (.018)	군 소방청 경찰	소방청 경찰 국정원
안전홍보 전체		3.443	3.419	3.561	3.144	3.388	.5468	2.072 (.108)	군 소방청 경찰 국정원	

\*\* p < 0.05

6) 소방안전 부문 문제인식

〈표 4-8〉은 다자간 국제회의 안전활동 문제점 구성 항목의 대분류 현장활동단계 중 중분류 “소방안전” 소분류 항목에 대한 각 기관별 문제인식정도의 차이 분석을 위한 일원변량분석 결과이다. “소방안전” 부문은 8개 항목으로 구성되며 이중 항목31, 항목33, 항목34, 항목35, 항목36번은 “소방안전” 부문 전체 평균 3.386 보다 높게 나타났다. 즉, 소방장비, 인력 및 예산의 부족과 소방훈련 시 유관기관의 협조와 소방인력에 대한 복지대책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29, 항목30, 항목31, 항목33은 유의수준 0.05 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발견 할 수 없었고, 항목32, 항목34, 항목35, 항목36은 유의수준 0.05 하에서 기관별로 문제인식정도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문제인식이 높은 기관으로는 소방청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국정원, 경찰, 군 기관 순이었다.

〈표 14〉 소방안전 부문 문제인식

구분	내 용	안전기관				평균	표준편차	F값 (Sig.)	동일집단 (사후검증)	
									1	2
29	안전요원을 대상으로 일반화재/방화에 대비한 대처요령/신고요령 교육이 부족하다.	3.30	3.11	3.18	2.86	3.14	.77	1.593 (.195)	군 소방청 국정원 경찰	
30	국제회의 행사의 임무수행을 위한 최상의 소방 매뉴얼 작성이 미흡하다.	3.30	2.97	3.45	3.09	3.17	.76	1.840 (.144)	소방청 군 경찰 국정원	
31	소방관련 최신장비(경보/소화/구조 등)도입이 미흡하다.	3.48	3.60	3.55	3.18	3.46	.77	1.409 (.244)	군 경찰 국정원 소방청	
32	행사장에서 예로사항 발생 시 관할을 초월하여 일선소방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미약하다.	3.25	2.63	3.18	2.82	2.96	.76	5.548** * (.001)	소방청 군 국정원	군 국정원 경찰
33	각 행사장별 동원된 소방인력은 적정인원수 보다 부족한 실정이다.	3.50	3.71	3.45	3.09	3.48	.86	2.477* (.065)	군 국정원 경찰 소방청	
34	소방안전 활동에 필요한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	3.52	4.40	3.91	3.09	3.75	.83	19.324** (.000)	군 경찰 국정원	경찰 국정원 소방청
35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긴급소방훈련을 실시하였으나 협조가 형식적이었다.	3.41	3.71	3.45	3.09	3.45	.81	2.821** (.042)	군 경찰 국정원 소방청	

36	소방인력에 대한 각종 복지대책(숙식/간식/편의시설 등)지원이 미흡하다.	3.48	4.31	3.73	3.00	3.67	.84	17.811*** (.000)	군 경찰 국정원	소방청
소방안전 전체		3.403	3.557	3.488	3.028	3.386	.4896	6.308*** (.001)	군	경찰 국정원 소방청

\* p < 0.1, \*\* p < 0.05, \*\*\* p < 0.01

### 7) 보도관리 부문 문제인식

〈표 15〉는 다자간 국제회의 안전활동 문제점 구성 항목의 대분류 현장활동단계 중 중분류 “보도관리” 소분류 항목에 대한 각 기관별 문제인식정도의 차이 분석을 위한 일원비량분석 결과이다. “보도관리”의 부문은 3개 항목으로 구성되며 이중 항목38이 보도관리 부문 전체 평균 3.366 보다 높게 나타났다. 즉, 보도진과 일반인의 출입통로를 달리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불편함이 있음을 각 기관에서 문제인식이 높은 것으로 지적하였다. 항목37, 항목39는 유의수준 0.05 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으나, 항목38은 유의수준 0.05 하에서 기관별로 문제인식정도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문제인식이 높은 기관으로는 경찰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국정원, 소방청, 군 기관 순이었다.

〈표 15〉 보도관리 인식

구분	내 용	안전기관				평균	표준 편차	F값 (Sig.)	동일집단 (사후검증)	
									1	2
37	등록 기자단의 수에 비해 보도 관리하는 안전인력의 부족으로 안전 요원/기자단 모두 애로가 있다.	3.34	3.26	3.64	3.05	3.29	.69	2.002 (.118)	군 소방청 경찰 국정원	소방청 경찰 국정원
38	보도진의 특권의식이 상존하여 장비 검색 시 안전요원과 마찰이 발생한다.	3.66	3.80	3.45	3.05	3.56	.76	5.478** * (.002)	군 국정원	국정원 경찰 소방청
39	장비가 많은 보도진의 출입통로가 일반인과 같아 보도진 출입이 불편하다.	3.39	3.17	3.18	3.14	3.25	.75	.800 (.497)	군 소방청 국정원 경찰	
보도관리 전체		3.4621	3.4095	3.4242	3.0758	3.3661	.5552	2.671* (.051)	군 소방청 국정원 경찰	

\* p < 0.1, \*\*\* p < 0.01

### 3. 소결 - 분류별 문제인식 차이

#### 1) 대분류 인식차이

대분류의 통계분석 자료상으로는 사전준비단계(3.450), 평가 및 수정단계(3.317), 현장 활동단계(3.316), 실시단계(3.294) 순으로 문제인식이 높게 나타났으나 질적연구에 있어서는 4명 중 2명이 현장활동단계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는 것이 특이하다.

#### 2) 중분류 인식차이

현장활동단계에 있어서 최초 박사논문에서 통계분석을 실시한 14개 부문 중 가장 높은 문제 정도를 나타내는 영역은 안전인력운영 부문으로 3.485의 평균치를 나타냈으며, 다음으로 폭발물탐지안전(평균: 3.468), 안전장비(평균: 3.437), 위해정보/보안(평균: 3.417), 안전홍보(평균: 3.388), 소방안전(평균: 3.386), 보도관리(평균: 3.366), 비상안전대책(평균: 3.361), 컨벤션(평균: 3.286), 비표/출입통제(평균: 3.241), 교육/훈련(평균: 3.207), 식음료안전(평균: 3.163), 차량/교통안전(평균: 3.116), 통신관리(평균: 3.09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제 14개 부문이 “문제가 보통이다”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본 논문에서는 상위 7개 부문을 중심으로 항목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안전기관에 따른 문제인식으로 국정원은 안전인력운영, 위해정보/보안, 안전홍보 부문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소방청은 폭발물탐지안전, 안전장비, 소방안전 부문에서, 경찰은 보도관리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문제인식 수준이 비교적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군이 비교적 타 안전기관에 비해 외곽에서 근무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 3) 소분류 인식차이

언급한 소분류 39개 항목 중 “문제가 대체로 있다”인 3.5 이상인 항목은 안전인력운영 부문 8개 항목 중 2개 항목, 폭발물탐지안전 4개 항목 중 2개 항목, 안전장비는 2개 항목 중 1개 항목, 위해정보/보안은 8개 항목 중 4개 항목, 소방안전은 8개 항목 중 2개 항목, 보도 관리는 3개 항목 중 1개 항목이며, 안전홍보는 6개 항목 중 없었으므로 12개 항목이며, 나머지 27개 항목은 “문제가 보통이다”로 나타났다.

## V. 안전활동 제고방안

### 1. 안전인력의 효율화 및 전문화

일부 유관기관인 준비기획단에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공무원이 담당해야 할 임무를 자원봉사자로 충당시키기 때문에 업무의 공백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이 노출되기도 하였으나 안전활동이 주로 안전인력에 의해 수행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안전인력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안전인력 전문화를 위하여 인력풀을 구성하여 차후 행사에 활용할 수 있게 대비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국제회의 행사의 안전활동 유경험자와 자원봉사자들을 경험한 업무별로 구분하여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차제에 유사한 국가적인 행사에 차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동원인력수가 많은 다자간 국제회의의 행사인 경우에는 행사가 임박하면 안전인력을 추가적으로 조정하는 문제로 인해 여러 가지 행정적인 갈등요소가 수반될 수 있으므로 안전기관별로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통해 정확한 인력수요를 산출하는 것이 요망된다.

### 2. 폭발물탐지 업무의 조직화 및 전문화

폭발물탐지팀의 구성은 전문성이 확보된 인력을 선발하되 탐지반 내에 관련 유관기관인 소방, 한국전력, 가스안전공사, ELV회사 등과 합동반을 구성하여 주요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을 동시에 병행해야 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다. 성공적인 국제회의의 진행을 위하여 대테러 전문인력의 양성과 함께 폭발물 탐지 및 제거에 관한 인력풀인 군경 EOD팀과 탐지견부대를 적극 활용하여 행사장 내·외곽에 대한 위해물질 탐지제거에 주력하여야 한다.

연도에 대한 점검도 구간별 책임구역을 명확히 구분하여 안전점검 및 확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하여야 신속하고도 효율적인 점검이 될 수 있으며, 갈수록 위협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는 원격조정장치를 이용한 폭탄테러에 대비하기 위하여 유통과정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운용할 필요가 있으며 원격장비의 작동범위 내에서의 경계강화 및 무력화할 수 있는 장비를 더욱 현대화하여야 한다.

다자간 국제회의에 참석하는 대표단 화물의 이동, 배달, 수집은 준비기획단의 책임 하에 실시하되 안전확보를 위한 화물검색은 안전전문가에 의한 X-RAY기 통과와 폭발물 탐지견을 활용한 검색이외에 인권문제로 일부 투입되지 못하는 현대화된 장비의 투입을 고려해야 할 시기이다.

폭발물탐지 및 제거업무 이외에도 부수적으로 전력확보, 화재예방, 화재발생시 대피 및

진압, 회의 참석대표단이 사용하는 각종 기계시설에 대한 정상작동 보장, 행사장내 위험물 안전조치 등의 임무를 병행하여 실시함으로써 국제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로 이어질 것이다.

### 3. 안전장비 첨단화

국제적인 행사에서 최대 위협요인은 폭발물을 이용한 무차별적인 테러공격일 것이며 이에 대비하여 특수 안전장비인 EOD 특별차량, 폭발물처리 로봇, 내부 탐색경, 특수차량 장비, MP계열의 기관단총, 저격용 소총 등 대테러장비의 확충이 필요하다. 아울러 컨벤션 행사장에서 적합한 첨단장비인 CONPASS Body Scanner X-Ray기 및 Ionscan Sentinel기 등의 도입을 통하여 출입인원이나 행사장으로 반입되는 화분, 소포, 박스 등 은닉 가능한 각종 유형의 금속·비금속 물질을 쉽게 탐지할 수 있으며, 출입인원이 문형 틀을 통과할 때 공기를 분출, 순간적으로 공기를 흡입하여 폭약 및 마약의 이온성분을 탐지 분석할 수 있는 장비를 도입한다면 안전활동 시 안전인력 효용의 극대화를 이룰 수 있다.

주 행사장의 광범위한 안전구역 설정에 따른 안전인력의 경제적인 소수 정예요원의 배치도 중요하지만 첨단장비를 활용한 과학적 안전장비의 활용을 병행시킨다면 국제회의의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약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안전장비의 첨단 과학화의 증대는 안전인력의 운용 규모와 상호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예산절감과 안전인력 역량 극대화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첨단 안전장비의 도입에 필요한 예산은 행사 개최 최소 2~3년 전부터 단계적으로 늘리고 이에 따른 운영요원의 확보도 안전장비의 도입시기와 맞춰 동시에 준비하여야 한다.

유선 상황전파를 위해 원터치방식의 인터폰 수를 늘리고 휴대폰 문자전송시스템을 활용하여 각종 상황을 전파할 수 있게 하며, GPS시스템의 단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CDMA 채널을 이용하는 등 통신관리 업무를 보완 발전시켜야 한다. 회의장 지하와 연도상의 터널 등 무선난청지역은 사전에 면밀한 점검을 실시하여 주 중계기 신설과 보조중계기 설치 등 완벽한 무선통신을 구현할 수 있는 무선통신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각 안전기관이 유사 시 일사불란하게 지휘할 수 있는 통합통신망을 구축할 수 있는 지휘통신망을 구축하여야 하며, 행사 보안을 위해 각 안전기관별로 통신보안 교육과 암호장비 설치, 일일점검 실시, 유·무선 측정장비 설치 등 정보누설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4. 정보·보안활동의 내실화

국의 정보기관과 대테러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FBI, CIA 등 외국 정보·수사기관과의

공조활동은 물론 국제회의 참가국의 국내 상주공관 보안담당자들과 정보교류 활동 및 해외 정보주재관, 경찰주재관과 인터폴을 통한 국제 테러정보수집에도 주력하여야 하며, 국제 테러협약자의 리스트를 사전에 확보하여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 하여야 한다.

국내 각 안전기관과도 안전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여 대테러활동에 최선의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성공적인 행사개최에 필수적인 요인이다.

총포, 화약류, 위험물 등의 물적취약요소가 안전활동의 위해요소로 이용되지 못하도록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각 기능별로 전담반을 구성하여 취약요소를 사전 정비하여 안전 활동을 강화하며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 및 단속도 병행하여야 한다. 또한 지리적취약요소에 대해서도 행사장 주변 공사장과 직시건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감제고지에 대해서도 안전기관 간 협조를 통해 사전장악·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 5. 안전홍보의 조직화

다자간 국제행사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홍보업무는 다른 안전업무에 비해 중요도에서 후순위로 밀리는 것이 상례이나 불순분자의 행사장 접근이나 이상한 물품의 방치·매설 등 수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신고하여 추적, 조치하였을 때 위해를 예방하는 의외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으므로 시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업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제 안전기관이 독자적인 홍보활동을 경쟁적으로 전개하다보면 행사 안전관련 업무의 통합적인 대 언론활동이 일원화되지 못하여 왜곡보도가 발생 등 행사안전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신뢰가 저하될 수 있으므로 제 안전기관이 통합적으로 홍보업무를 관장할 수 있도록 가칭 안전홍보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언론 기본방침을 갖고 인터뷰와 취재요구에 통합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그 외에 인터넷 방송사나 지방 언론사들과도 안전홍보와 관련한 협조체제를 강구하여 다자간 국제회의 행사에서 테러 발생을 예방하고 행사가 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 주민의 이해와 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시각 미디어를 활용한 대국민 홍보대책 등을 수립하여야 한다.

## 6. 실질적인 소방통합조정권 강화

대규모 다자간 국제회의인 경우, 지방 소방인력만으로 행사를 전담하는데 한계와 무리가 따를 수 있으므로 전국단위의 화재방 대응팀, 구급 기동팀, 소방 항공팀 등 소방인력의 통합적 운용 및 소방안전을 위한 사전 마스터플랜의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며, 행사지역에서 단일화된 지휘체계의 확립으로 소방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소방안전 분야는 초를 다루는 업무이므로 각 행사장별, 유형별, 상황별 행동요령 및 피난 대책, 대피유도 방법, 유도요원 행동강령 등의 내용을 매뉴얼에 필히 포함시켜 숙지토록 하여야 한다.

또한 소방인력은 24시간 대기체제가 확립되어야 하기 때문에 소방인력의 대기장소와 숙식 등의 근무환경 제공과 제 안전기관 간의 신속한 정보교환이 가능토록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며, 소방관련 첨단장비 도입을 점진적으로 늘리고 소방인력에 대해 전문교육과 훈련도 계속 강화해야 한다.

행사시 소방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평시에 전기, 가스, 승강기 등과 관련된 회사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통하여 안전기관 간의 통합조정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 7. 보도활동의 효율화

다자간 국제행사 시에는 보도관련 기자단의 수가 수천 명에 이르기 때문에 보다 체계적인 보도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기자단에게 원활한 행사진행과 취재활동의 편의를 제공하면서도 행사장 안전과 질서유지를 도모하기 위하여 명확한 보도관리 지침수립은 물론, 준비기획단의 보도담당 직원과 사전 의견조율을 통하여 행사 중 긴밀한 협조가 유지되어야 한다.

또한 해당 POOL 기자단은 정해진 대기실에서 일정시간 전에 집결하여 신원·장비를 확인하고 안전요원의 인솔 하에 도보 또는 차량으로 단체 이동하여 지정 위치에서 취재하도록 협조해야 하며, 기자단이 협조하기 용이하도록 안내문을 사전 발송하거나 기자단 편의를 위해 보도라인 등을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하여야 한다.

아울러 적은 수의 보도요원으로 많은 수의 기자단을 효과적으로 안내하려면 보도임무를 수행했던 경험자를 선발하여 사전답사 등 일정기간 동안 교육훈련을 거쳐 전문화된 보도안전요원으로 양성한다면 보다 효율적인 보도관리가 될 수 있다.

## VI. 결 론

태국에서 열린 ASEAN+3 다자간 국제회의가 태국 내 반정부시위대의 행사장 난입으로 개막한지 하루 만에 무산되었다. 일정은 무기한 연기되었고 회의에 참석한 15개국 정상들은 당일 오후 전원 태국을 떠나는 사태가 발생했으며 그로인해 국가 대외신인도는 물론 바트화 하락, 태국 경호경비기관의 역량에 대한 신뢰도가 탕에 떨어지는 사례를 보면서 다자간 국제



회의 중 행사장에서 사전 안전조치를 취하는 현장활동단계의 역할 및 중요성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2005년 부산에서 개최된 APEC 행사의 안전활동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를 토대로 향후 우리나라에서 개최될 다자간 국제회의의 안전활동에 대한 제고방안을 모색해 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하여 부산 APEC 행사에 직접 참여했던 국정원, 경찰, 소방청, 군의 안전기관 책임관에게 협조, 행사에 참여자 중 설문에 응할만한 위치에서 근무한 기관원을 선별하여 델파이방법에 의해 3차례에 걸쳐 의견을 수렴하여, 국제회의의 단계별 구성요소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구성요소별로 문제인식에 대한 통계처리를 실시하였다. 아울러 해당 기관의 핵심적인 전문가와 1 : 1 심층면담 결과를 바탕으로 다자간 국제회의의 행사에 관한 안전활동 제고방안을 모색하였는바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안전활동의 제고방안으로 안전인력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제회의의 행사를 담당하는 공간기관이 유경험자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차제에 유사한 범국가적인 행사에 차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다자간 국제회의의 행사장의 안전활동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폭발물 검측업무를 위해 전문성이 확보된 인력을 선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검측장비의 활용도를 높이고 첨단 검측장비의 적극적인 도입이 필요하며, 유관기관인 소방, 한국전력, 가스안전공사, 엘리베이터 회사 등과 합동반을 구성하여 주요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을 동시에 병행할 수 있어야 한다.

안전장비의 첨단화를 위해서는 첨단장비 박람회 등을 통해 각종 안전장비 정보를 확보하고 중·장기적인 장비 도입계획과 안전장비와 IT의 접목 등으로 과학화를 위해 끊임 없는 관심과 인프라구축이 필요하다(이선기, 2007).

정보·보안업무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국내·외 정보기관과 안전정보를 공유하고 협조체제를 공고히 하며 대테러활동에 최선의 대책을 강구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홍보활동의 조직화를 위해서 공간기관과 지자체 간의 홍보연대를 위해 홍보기구를 설치하여 대언론 기본방침에 의해 인터뷰와 취재요구에 통합적으로 운용, 시각미디어를 활용한 대국민 홍보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소방안전을 위하여 소방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평시에 전기, 가스, 승강기 등과 관련 회사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구하고, 행사 시 이들 기관들과도 통합조정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보도관리의 효율화를 위해서 수천 명의 기자단에게 원활한 취재활동의 편의를 제공하면서도 안전과 질서유지를 도모하기 위한 명확한 보도관리 지침수립과 준비기획단의 보도담당 직원과 취재기자단 간사와의 긴밀한 사전협조가 선행되어야 한다.

## 참 고 문 헌

- 경찰청. (2006). 『종합치안백서』, 경찰청, 3~15.
- 국정원. (2006). 2005 테러정세, 국정원, 36~45.
- 김두섭 譯. (1999). 질적 연구방법론(Qualitative Researching, Jennifer Mason원저), 나남신서, 65~100.
- 김두현. (2004). 『현대 테러리즘론』, 백산출판사, 569~585.
- 김영천. (1997). 질적연구의 이해, 김영사, 78~82.
- 김우곤. (1997). 『국내 컨벤션산업의 현황 및 경제파급효과에 관한연구』, 세종대학교 관광경영연구, 34~45.
- 김장신. (2003). 『컨벤션 기획 및 실무』, (주)팁스 원, 3, 7~12.
- 문연철. (2001). 『국내 컨벤션산업의 위기관리 실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림대학교 대학원, 12~13.
- 부산시. (2005). 『역대 APEC 개최 사례 - 2003년 태국 방콕』, 부산 APEC기획단, 146~158.
- \_\_\_\_\_. (2005). 『2005 APEC 정상회의성공개최 준비상황』, 2005 부산 APEC기획단.
- 박홍윤. (1997). 위기관리 정보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충주산업대 논문집 제32집 1호, 396.
- 소방청. (2006). 『소방안전활동 백서』, 부산광역시 소방본부, 269~275.
- 송래헌 외. (2003). 『컨벤션 경영과 기획』, 대왕사, 27~38.
- 안경모 외. (1995). 『국제회의 기획경영론』, 백산출판사, 135~146.
- \_\_\_\_\_. (2004). 『한국의 컨벤션 안전대책에 관한 연구』, 호텔관광연구 제8호, 8, 57.
- 오현득. (2005). 『국제행사 안전대책 방안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 외교부. (2006). APEC정상회의, 서울: 외교통상부, 14.
- 이명수. (2003). 국가안전관리시스템의 진단과 처방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학원, 21~24.
- 이선기. (2002). 『한국의 뉴테러리즘 대응방안』, 중앙공무원교육원 논문, 71~94.
- \_\_\_\_\_. (2007). 다자간 국제회의 안전활동의 효율성 제고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28, 119, 121, 125, 127, 128, 130, 134, 219~234.
- \_\_\_\_\_. (2007). 국제회의 행사의 안전활동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 제26호, 65~104.
- 이재은. (2000). 한국의 위기관리 정책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75~76.
- 이현우 譯(1999).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Cooms, T. W 원저), 커뮤니케이션 북스, 57~65.
- 조선일보. 2005. 4. 24. 16면, 2005. 3. 9. 13면.
- 주일엽. (2006). 『국제스포츠대회 안전활동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대

학원. 162~171.

최성룡. (2000). 『국가재난관리의 효율화 방안』, 중앙소방학교, 45~57.

황희곤 외. (2002). 『컨벤션 마케팅과 경영』, 백산출판사.

D. G. Rutherford. (1990). Introduction to the Convention, Expositions, and Meeting Industry, New York : Van Nostrand Reinhold.

Guba & Lincoln.(1985). *Fourth Generation Evaluation*. Newbury Park. CA: Sage.

Laqueur Walter. (2002). *No End To War*, New York : continuum.

MPI. (2001). *Risky Business Platinum Series*. ([Http://www.mpi.org](http://www.mpi.org)).

Sarah Byrant. and Sylvia S. Gaiko. (1999). Determining Skills Necessary for meeting Planners, Proceedings The Convention/Expo Summit VII, Las Vegas : Nevada February.

News and World Report (1999) U.S 4. 19일자.

Philip Melanson. (1998). *The politics of protection*, Massachusetts University.

## Abstract

### **The Study about Role and Importance of Site Activity Stage in Safety Activity for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among Several Countries**

Lee, Sun-Ki

This study's purpose is to present the improvement of effectiveness of security activity for international conference among Several Countries which can be held hereafter. On the basis of security activity problems originating in APEC that had been held in Busan in 2005.

I made up questions three times to on the members of the police, military, fire fighter and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who had experienced in Busan APEC and recognition of possible problem and possibility of improvement on each item of questions was analyzed by Delphi Method.

Also interviews with 4 security experts selected from each security agency were conducted to present improvement in each part of problem.

The results obtained from the face to face interview with four experts of security-enforcement agency about the role and importance of site activity stage for international conference among several countries are as followings :

First, the system that experienced security-enforcement agents can be selected for the next national security event is needed, by data-basing the security-enforcement agents who were experienced in security event as man power management.

Second, the middle-term plan for the introduction of high-tech equipment and joint inspection with relevant security agents are needed for the efficient explosive technical detection.

Third, high-tech security equipment could be introduced through the international high-tech security equipment exhibition.

Fourth, an anti-terrorism plan should be measured by sharing information through the cooperation wi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intelligence agency.

Fifth, public relations should be measured systematically by organization rather than agents' individual public relations.

Sixth, political consideration to secure integrative coordination with other agency is needed for security activity, through normal cooperation with fire fighting related agency such as an electric, gas, elevator company.

Seventh, a definite press guideline is needed for a convenient news coverage and safety during security event.

**Key Word : international conference among several countries, security activity, possibility of improvement, Delphi Method, site activity stage, recognition of possible problem**

논문투고일 2009.04.28 심사일 2009.05.13 게재확정일 2009.06.10

<별첨자료> 본 질문지는 질적연구에 대한 면담자료(반구조화)를 심사위원님에게 제시하기 위한 자료임.

## 심층면담 질문지

현장활동단계는 행사지역에서 각 안전기관별, 기능별, 분야별로 안전활동을 위해 준비체계를 구축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에 대해 공감했으며, 아래 질문이외에 부문별로 공통적인 추가 질문을 실시하였는바 그 내용으로는 애로사항, 차출 직원으로부터 행사와 관련된 이면의 특이사항, 필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 발전방안, 장려사항 등이었다.

최초 연구에서 사용된 면담 질문지의 내용은 대분류 4단계(사전준비단계, 현장활동단계, 실시단계, 평가 및 수정단계) 중 본 연구에서 활용한 현장활동단계 중분류 14개 부문 중 본 연구와 관련된 일부 심층면담에 사용할 내용으로 구성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안전인력운영

- 1) 컨벤션 내에 임대를 담당하는 지자체와 안전기관 간의 상호 조율이 부족하여 임대업자의 불만과 그로인해 안전활동을 실시하는데 불안요소는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 2) 컨벤션 진입로가 주변 VIP 숙소와 인접하여 불필요한 통제 등으로 일반시민이나 관광객의 불편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 3) 광활한 컨벤션구역의 출입통제대책으로 인하여 참석자 및 일반 방문객의 불편사항,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 4) 각 사무실 배치, 지원 및 안내부서 근무지, 근무인원의 대기장소 등 사무실과 근무자의 배치 잘못으로 불편하지는 않으셨습니까?
- 5) 컨벤션을 중심으로 적의 기습공격 및 재해·재난에 대비한 비상대책은 적절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 6)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은 적절히 시행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행사인력은 전문성을 고려하여 선발하였으며 인력은 적재적소에 배치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경험을 우선시하여 배치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 7) 금번 행사에 참여했던 근무자는 장소별, 임무별로 기록자료를 남겨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있습니까?
- 8) 사전예고 없이 유관부서에서 추가 인력을 요구하지는 않았습니까?

## 2. 위해 정보/보안

- 1) 행사를 방해하려는 시위정보는 없었으며 만약 있었다면 각 안전기관 간의 정, 첩보사항의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 2) 해외 테러조직의 동향 및 국내 잠입에 대한 정, 첩보사항은 참가국 정보기관, 국내 유관기관, 제 안전기관간에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안됐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3) 집회 및 시위, 행사에 반대하는 NGO에 관한 정, 첩보사항 수집에는 문제가 없었으며, 그에 대해 방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는 충분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 4) 주요 5대 국가에 대한 경호안전 관련 정, 첩보사항을 상대국과 협의하고 관련 상대국과 유기적인 정, 첩보사항을 교환하셨습니까?
- 5) 행사장을 중심으로 인적, 물적, 지리적 취약요소에 대한 조치는 완벽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3. 비표/출입 통제

- 1) 비표업무는 특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로서 각 안전기관별로 인원 선발은 적합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 2) 비표의 위·변조, 부정사용 예방을 위하여 등록 시 신분확인 이외에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 3) 비표 분실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제작 전, 후별로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 4) 비표의 기능을 다양화함으로써 출입방안 이외에 다방면으로 활용하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 4. 차량/교통안전

- 1) 입체적인 차량/교통관리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는 GPS, CCTV 등 장비 설치 외 어떤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 2) 참가 국가별 차량대형 연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협조해야 할 부서와 협조점의 위치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 3) 국제회의 기간 중 개최도시 시민의 자발적인 협조와 동참을 호소하는 방안은 어떤 방법이 좋겠습니까?

## 5. 안전장비활용

- 1) 국제적인 대규모 행사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각종 장비의 활용이 중요한데 장비구입 시기는 행사 개최 시기보다 어느 정도 사전에 구입해야 운영상 오류 및 시행착오를 방지할 수 있겠습니까?
- 2) 검색장비, 감시장비, 통신장비, 통제장비 중 꼭 구매하지 않고, 리스비만 지급하고 민간과 협력 하거나 외국 안전기관의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3) 각 안전기관별로 소요장비를 총괄하여 기관에 관계없이 적재 장소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6. 보도관리

- 1) 보도관리를 위해 무전망을 이용할 시 각 안전기관별로 상이하여 유사시 통합적으로 지휘해야 할 상황에 대비하여 선행되어야 할 과제는 무엇입니까?
- 2) 기자들의 특성을 이해하고 긴밀한 협조 하에 보도관리를 할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은 없겠습니까?

## 7. 폭발물탐지/제거

- 1) 폭발물탐지/제거를 각 관련기관을 통합한 인력풀을 통해 활용하고,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협조 관계를 지속하려면 평상시 선행해야 할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2) 일부 회교국가에서 탐지건을 활용한 검측방법을 거부하는데 이에 따른 기술적인 대안으로 어떤 방법이 좋겠습니까?
- 3) 대테러장비의 과학화와 이에 따른 전문인력의 육성방안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 4) 현재 검측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 8. 소방안전

- 1) 소방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소방서는 평상시 어떤 권한과 책임을 갖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 2) 각 행사장별 완벽한 안전체제 구축을 위해서 화재대응, 구조대응, 구급대응훈련을 위한 교육/훈련내용과 단계, 기타 안전기관의 협조사항은 어떤 것이 좋겠습니까?



- 3) 국민과 안전통제단이 소방에 요구하는 사항에 비해 예산의 배정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9. 교육/훈련

- 1) 향후 국제행사에 대비하여 체계적인 교육/훈련의 체계상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 2) 국제행사에 대비한 교육/훈련실시에 있어서 교육받은 직원들의 사기와 관련하여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 3) 교육/훈련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종합예행연습의 비중은 현재보다 더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4) 체계적이면서 일관성 있는 교육훈련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0) 안전홍보

- 1) 안전통제단 차원의 공보위원회 기능보다는 각 안전기관 별로 홍보업무에 역점을 둔 경향이 있습니다. 공보위원회의 대언론, 대국민 홍보기능 확대를 위한 방법으로 무엇이 있겠습니까?
- 2) 각 유관기관의 홍보활동에 대한 사전 의견조율을 향상하는 방안은 없겠습니까?

## 11) 비상대책

- 1) 국가적 행사시 비상대책의 총체적인 역량이 만족스러울 만큼 확보되었으며, 국가 안위와 관련된 테러 활동에 어느 정도 집중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2) 각종 테러 및 재해, 재난에 대한 안전관계자 회의소집 및 워 게임 등 대책이 강구되었으며, 이에 대한 제고방안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 3) 의무, 화생방, 자연재해 등 비상대책에 있어서 유관기관의 능동적인 협조와 민간기관의 참여유도는 적절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 만약 미비했다면 이에 따른 대책은 무엇입니까?
- 4) 우리나라 시위대는 외국에 나가서 시위 할 때는 평화적인 시위를 하는 반면에 국내에서 시위할 때는 과격양상을 띠는데 국제적인 행사시 집회·시위를 평화적으로 유도하는 방향은 없겠습니까?

- 행사 개최도시의 특별치안 강화구역 선포에 대한 실효성이 있겠는지 대해 귀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5) 대테러 홍보포스터의 내용에 신고 포상금 관련사항이 빠져 있는데, 이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